

전원경

'꽃의 도시' 파리는 유럽을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도시다. 이 도시에 쌓인 숏한 역사와 문화예술의 유산들은 파리를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파리가 이처럼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이는 나폴레옹이다. 개선문과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의 구석구석에는 나폴레옹이 파리를 문화예술의 수도로 변모시킨 사연들이 숨어 있다.

흥미롭게도, 1770년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그리고 귀족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했던 곳도 프랑스였다. 프랑스에서 유럽 최초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농산물 수익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특히 시민이 부강해서 부르주아라고 불릴 만한 세력이 컸고 상대적으로 귀족의 세력이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 특히 지식인 부르주아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다비드가 1784년에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바로 이 같은 사상가들의 취향, 즉 장엄한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작품의 전형을 보여준다. 조국을 위한 죽음을 눈앞에 둔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승리의 맹세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동안, 여성들은 그림의 한 귀퉁이에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무력하게 울고 있을 뿐이다. 이 그림은 명백하게 로마의 공화주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가 인기를 얻으며 로마인의 의상과 애국주의가 파리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비드의 영광은 혁명 이후, 그리고 나폴레옹의 제1화가가 된 181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가 창안한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아카데미 유파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시티대학교 런던(City University London)에서 예술비평 전공으로 석사를,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문화컨텐츠산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 『주간동아』 기자로 일했으며 예술 3부작 시리즈인 『예술, 역사를 만들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 『예술, 인간을 말하다』를 비롯해서 『페르메이르』, 『클림트』, 『런던 미술관 산책』 등 예술과 문화사에 관련된 11권의 책을 썼다.

혁명의 와중에 등장한 젊은 장군 나폴레옹

1789년 7월 14일 파리 민중의 바스티유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은 루이 16세의 도주와 발각, 군주제 폐지, 국민공회 집권, 왕과 왕비의 처형, 자코뱅의 공포 정치, 테르미도르의 반동 등으로 급격하게 흘러갔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메시지가 유럽으로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탈리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프랑스 주변 국가들은 일제히 프랑스를 공격하게 된다. 프랑스 군대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공화주의자인 군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카이사르를 탐독했던 이 명민한 포병 장교는 군인의 기본, 즉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거듭된 승리로 인해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 인기를 업고 나폴레옹은 5인의 총재 중 1인으로 선출되었다. 1799년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원로원-500인 의회를 해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 3인 통령 체제를 만들고 자신이 제1통령으로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했다. 이어 1800년 이탈리아 원정 승리를 업고 종신 통령으로 헌법을 개정한 그는 파죽지세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나폴레옹을 그린 다비드의 여러 그림들과 앵그르의 나폴레옹 초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폴레옹은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특히 좋아해서 같은 초상화를 다섯 점 그리게 했다. 실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한 1800년의 2차 이탈리아 원정 때 나폴레옹은 말 대신 노새를 타고 산을 넘었다. 다비드의 나폴레옹 초상은 그를 카이사르에 필적하는 영웅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 그려진 상상화일 뿐이다. 나폴레옹은 다비드의 초상을 통해서 '영웅이자 참다운 황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성공한 셈이다. 1804년 국민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업고 제정을 선언한 나폴레옹은 35세의 나이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12년 전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파리는 이제 황제 나폴레옹을 환호 속에 맞아들였다. 왕은 프랑스 국민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았으나 황제는 신성로마제국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위대함의 상징이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던 나폴레옹은 자신을 고대 로마 제국 황제의 후임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정치적 변화로 인해 신고전주의는 더욱 강력하게 프랑스와 유럽 미술을 지배했다.

유럽, 전쟁의 물결에 휩쓸리다

스스로를 '나폴레옹 1세'로 칭한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현신으로 여기며 로마 제국의 부흥을 꿈꾸었다.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주변국가들을 차례로 침략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를 프랑스 제국에 편입시키고 자신의 형제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옹립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할양해 준 나라들에서는 곧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들 반란군의 뒤에는 대개 오스트리아와 영국 정부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수 차례에 걸쳐 영국 침략을 시도했으나 넬슨 제독의 영웅적인 지휘로 인해 스페인-프랑스 연합 함대가 트라팔가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의 꿈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나폴레옹군의 주둔을 환영하던 각국의 민중들은 곧 지배자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전쟁에 징발되는 젊은이들의 수만 늘어나게 되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스페인 민중은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 전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나폴레옹은 이 반란을 가혹하게 진압했으나 이후에도 스페인 민중은 계속 게릴라전 ('게릴라'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다)을 펼쳐 나폴레옹군을 괴롭혔다.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나폴레옹군에 의해 처형되는 민중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하고 있다. 나폴레옹 몰락의 시발점이 된 것은 대륙봉쇄령의 한계, 그리고 1812년의 무리한 러시아 원정이었다.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유럽은 사탕수수와 커피조차 수입하지 못하는 지경이었고 결국 1810년 러시아가 영국과 비밀리에 무역을 재개했다. 나폴레옹은 1812년 6월에 3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올라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10월 모스크바를 점령했다. 알렉산드르 황제는 계속 후퇴하기만 했고 코사크 기병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으로 나폴레옹군의 숨통을 조였다. 결국 나폴레옹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추격전을 계속하다 매서운 러시아의 겨울 추위에 퇴각을 결정했다. 30만 대군의 대부분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5만명만 돌아왔다.

1812년 러시아원정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제국을 지키는 조건으로 프랑스 황제 자리에서 퇴위한다. 처형당한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해묵은 왕권신수설을 내세우고 국민의 실망 속에서 나폴레옹이 복귀했을 때, 그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일 만큼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차 결성된 대불 동맹은 나폴레옹의 부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자신의 운명을 건 1815년의 워털루 전투의 패배 후 나폴레옹은 영국군에 체포되어 아프리카 한가운데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보내진다. 이 섬에서 그는 7년을 버티다 사망했다.

황제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했으므로 그가 죽자마자 파리에서는 황제의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1840년 나폴레옹의 유해는 세인트헬레나에서 파리로 옮겨졌다. 그의 유해는 생전에 완공을 보지 못한 자신의 개선문을 지나 앵발리드에 안치되었다. 1806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 건축되기 시작한 이 개선문은 당초 로마에 있는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모방한 것이다. 자신이 로마 황제의 후손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나폴레옹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오늘날 나폴레옹의 개선문은 파리의 중심부에서 당당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파리의 중심에 거대한 나폴레옹의 기념비가 선 것이다.

일시
2025 년 11 월 11 일(화)
오전 10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 녹음할 수 없습니다.